

전공심화과정을 통해 고급인력 양성 유한대학 건축설비과

① 우송공업대학 - 2009. 3월호

② 두원공과대학 - 2009. 4월호

③ 유한대학 - 이번호



기계 및 설비관련 학과는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되는 기계를 다루는 기술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계관련 이론과 작업분석에 대한 다양한 실기를 통해 산업현장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것에 교육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기계 및 설비관련 학과에서는 오늘날의 첨단 기계 산업의 발달 및 다양화에 발맞추어 생산 및 생산시설 관리, 제품의 설계 및 제작, 엔지니어링 마케팅,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관련 업무를 충실히 담당할 중견 전문가 양성도 담당 한다. 2009년 현재 전국 13개 대학에서 기계 설비분야의 미래를 책임질 기계설비 전문인 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본지는 지난 3월호부터 전국의 기계 및 설비관련 학과를 소개한다.

건축설비과는

유한대학 건축설비과는 1984년 개설된 이래 25년간 약 3,00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며 설비건설업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정원 20명의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3·4학년 과정)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설립하여 4년제 건축설비공학과로의 발돋움을 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1·2학년 전문학사과정은 주간 90명, 야간 30명, 3·4학년 전공심화과정은 20명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건축설비과는 설비관련 산업체와의 산학협동위원회를 통한 적극적인 교류로 설비건설업계에서 요구하는 인력 배출 및 진로에 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대한설비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유한대학 건축설비과 산학협동위원회 등 외부장학금 및 교내장학금으로 구성되어 다른 대학 및 유한대학 타 학과와 비교하여 월등히 많아 매 학기 80여명이 장학금의 혜택을 받는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고 있다.

교육 목표 및 교육 내용

현대의 건축물이 대형화, 자동화되고 있으며, 건축물 실내 환경에 대한 요구도 다양하게 변하고 있어 건축설비

▲ 교육내용

전문학사 과정 (1·2학년 과정)	
이론	공기조화, 위생설비, 설비실무, 자동제어, 설비시공, 난방설비, 냉동공학, 소방설비
실습	설비시공실습, 건축설비설계, 빌딩관리실습, 설비적산 연습, CAD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 (3·4학년 과정)	
전공	설비PE, 설계실무, 적산실무, 공사실무, 빌딩관리, Team Project, CAD실무
교양	실무영어, 프레젠테이션 등

의 중요성은 한층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건축물의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설계, 시공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의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설비건설인 양성을 위한 노력

전문학사과정(2년제)에서는 건축설비 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 산업기사, 소방설비 산업기사, 가스 산업기사 등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졸업 후에는 각종 설비 설계사무소, 설비시공업체, 종합건설회사, 엔지니어링회사, 시설관리업체, TAB업체, 가스업체 등 설비관련 우수업체로 다양하게 취업 할 수 있다.

재학생의 졸업 후 진로 및 취업을 위한 취업담당 교수와 조교가 각 학과마다 지정되어 있어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취업 지도를 하고 있다. 특히 본과 졸업생 중 기술사 취득자가 20여명에 이르러 기술사 취득률도 매우 높다.

건축설비(공학)과의 장점 - 학사학위 취득 전공심화과정

※ 전국에서 유일하게 개설된 유한대학 건축설비공학과 전공심화과정은 설비건설인으로 주간에 직장을 다니면서 야간에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설비건설업계 고급인력 확충에 노력하고 있다.

- 전공심화과정(3·4학년 과정) 2008년 3월 개설
- 입학 자격 :
 - 건축설비, 기계, 기계설비 관련학과 전문대학 이상

- 학력소지자중 1년 이상의 관련 산업체 근무 경력
- 입학 후 60학점 이상 취득 시 4년제와 동등한 학사 학위 취득
- 야간 수업으로 진행되므로 직장생활과 병행하여 학사학위 취득 가능
- 학사학위 취득 후 기술사에 준하는 고급기술을 습득으로 재취업 및 대학원 진학 가능
- 수도권에서 직장인으로서 건축설비공학 학사를 취득할 수 있는 유일한 과정

▲ 학과 교수 소개

교수명	담당과목	직위
정기범	건축일반, 건축설비제도	전임교수/학과장
박정원	공기조화, 건축설비설계	전임교수
이용화	위생설비, CAD	전임교수
최상근	건축설비설계, 냉동공학	전임교수
홍성은	설비시공실습, 열역학	전임교수
강기호	설비적산실무	산업체 협력 및 겸임 교수
김수영	설비관련법규, 건축일반	산업체 협력 및 겸임 교수
김영호	배관실무, TAB	산업체 협력 및 겸임 교수
김중호	빌딩관리, 자동제어	산업체 협력 및 겸임 교수
동영식	컴퓨터실습	산업체 협력 및 겸임 교수
조정식	유체역학, TAB	산업체 협력 및 겸임 교수

연락처 • 전화 : 02-2610-0788, 0789(학과 사무실)



무한지식

이모티콘 이야기

“지구상에서 멸종되어가는 수많은 것들 가운데 가장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것은 바로 언어이다”

최근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는 소수민족과 원시부족이 쓰는 언어들이 2주에 하나 꼴로 사라지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지는 언어가 있는가 하면, 최근 들어 더욱 널리 퍼져가는 언어도 있다. 인터넷상에서 흔히 쓰이는 이모티콘이 그것이다. 이모티콘은 인터넷에서 메일을 쓰거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주로 쓰이는데, 여러 가지 기호를 이용해 감정을 표시한 것이다. 그런 이모티콘이 2007년에 탄생 25주년을 맞았다.

이모티콘을 가장 먼저 사용한 사람은 미국 카네기멜론 대학의 스콧 팔맨 교수이다. 팔맨 교수는 1982년 9월 19일 오전 11시 44분에 온라인 전자 게시판에서 미소 짓는 표정의 이모티콘 ‘:-)’을 처음 사용했다. 온라인 유머의 한계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에 장난스럽게 시작한 것인데 그것이 널리 사랑을 받으면서 급속도로 번져가게 된 것이다.

오늘날 이모티콘은 주고받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 다양하게 개발되어 또 하나의 언어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동양 문화권과 서양 문화권 사이에 이모티

콘의 차이가 뚜렷하다는 점이다. 그 차이점에 주목한 사람은 일본의 유키 마사키 박사이다. 일본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모티콘은 주로 눈의 표정을 나타내는 반면, 미국인들은 입 모양에 신경을 쓴다고 한다. 예를 들어 미소 짓는 표정을 나타낼 때 미국인들과 일본인들은 각각 이렇게 표시한다.

미국인 :-) 일본인 ^^

마사키 박사에 따르면 이것은 민족성과 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평소에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일본인들은 무표정 속에 감춰진 진짜 감정을 찾아내기 위해 눈을 주목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 역시 일본인들이 많이 쓰는 이모티콘과 거의 비슷한 것을 쓰고 있는데, 사실 우리에게 더 크게 와 닿는 문화적 차이는 동양과 서양 문화권의 차이가 아니라 이모티콘을 이해하는 세대와 그렇지 못한 세대 간의 장벽이 아닐까 싶다. 젊은이들의 새로운 언어로 자리잡은 이모티콘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른들이 얼마나 많은가 말이다. 모 방송국의 오락 프로그램에 항상 등장했던 멘트처럼, 4,800만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대화하는 그날이 쉽사리 올 것 같진 않다.

- 「정재승의 도전! 무한도전」 중에서